

## 행복한 금요 편지

# 위공이 남긴 과업과 그의 길

김종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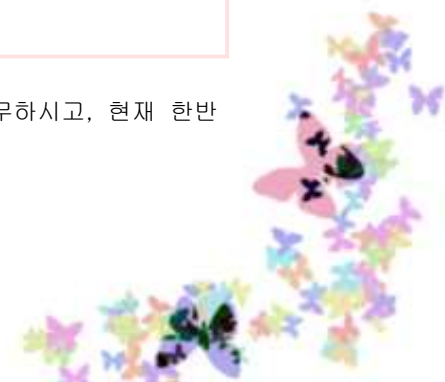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sup>1)</sup>

고(故) 위공 박세일 교수님 영전에 바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큰 별을 떠나보냅니다. 부디 하늘에서도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고 한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영성(領星)이 되어 주소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바로 그 해에 태어나 울곡(栗谷)처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길을 걸었던 현인(賢人)이 떠났다. 위공(爲公)은 홍익인간, 경제정의, 세계화, 선진화와 선진통일을 주창한 이 시대 불멸의 경세가이셨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세계평화주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개척한 선지자' 이셨다. 그리고 한반도의 선진통일을 위해 자강(自彊), 동맹(同盟)과 균세(均勢) 3원칙을 설파한 통일선봉자이셨다.

그 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중시하고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강조하셨다. 생전에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선진통일>과 <세계국가>의 건설이라고 설파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주체가 견지해야 할 철학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유주의, 즉 <공동체자유주의>를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루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내부적으로는 <국가선진화>에 성공하여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민족통일>에 성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김종근 박사는 삼성국제경영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선진통일의 길과 국가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이 있다. 대한민국에만 축복이 될 수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의 길, 교육개혁·시장개혁·정부개혁·지방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셨다.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의 위기, 자유민주주의의 표류, 시장자본주의 위기, 국가개혁의 부진, 국가공동체의 동요 및 해체 등 국가 위기적 과제들이 산적하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홀연히 떠나셨다. 이 시대가 위공을 목말라 부르고 있는데 후세들에게 남은 과업들을 맡기고 눈을 감으시다니 정말 눈이 감겨지셨습니까. 너무 비통하고 절절하다.

생전에 말씀하셨던 정치개혁은 정치리더십의 <정신적 혁신> <도덕적 혁신>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향상,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할 수 있는 시장자본주의 발전,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리주장과 책임의식의 공조를 강조하셨다. 21세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시장의 자유·공정·투명을 지키는 경제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초세계화·초정보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선진화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을 언급하셨다.

위공이 서 계셔야 할 시기에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시다니,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항상 자신에겐 가을서리처럼 엄격하셨고, 말하기에 앞서 먼저, 많이 듣고(善聽), 차선을 수용하며(虛心), 불편부당(不偏不黨), 무사애민(無私愛民)과 비례부동(非禮不動)을 실천하셨던 위인(偉人)이셨다.

이제 위공과 인연을 맺은 영광과 기쁨을 누린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선진화에 전념하셨던 일생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위공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잊지 못할 여행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행 중입니다. 브루스 채트윈의 말대로 인간의 진짜 주소는 집이 아니라 길이다. 인생은 그 자체가 여행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행복이란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했던 사랑하는 이들과 만들었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행복일 것입니다.

편안히 영면하시고 부디 후세의 가는 길에 주야로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